



하지감자 수확하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절기상 하지인 21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시포에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하지감자를 수확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여름철 잦은 비로 발생 '벼 병해' 대비 철저히

도열병·깨씨무늬병·잎집무늬마름병 등
현장 상황 수시로 관찰·이른 시기 방제해야

여름철 잦은 소나기와 국지적 폭우로 각종 벼 병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1일 여름철 비가 자주 내리면 발생 확률이 높은 벼 도열병, 벼 깨씨무늬병, 벼 잎집무늬마름병, 벼 흰잎마름병에 대한 예방 및 방제 방법을 제시했다.

벼 도열병은 잦은 비로 낮은 기온이 지속될 때 또는 비료를 많이 준 논에서 쉽게 발생한다. 특히 잠미철은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 도열병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상 쫄 때 나타난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벼 도열병 발생 면적은 총 4만1,566헥타르에 달했다. 이는 2020년(3만8,801헥타르) 대비 115%, 평년(1만8,523헥타르)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발생 초기에는 잎에 작은 암갈색 점무늬가 생기고, 후기에는 긴 방추형 무늬로 변한다. 무늬 안쪽은 회백색, 바깥쪽은 짙은 갈색을 띤다. 병이 심해지면 불규칙한 무늬가 형성되며 포기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 발생 부위에 따라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마디도열병으로 나뉘며, 벼를 수확하기 전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므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벼 깨씨무늬병은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고 양분이 떠나가기 쉬운 사질 토나 오래된 논에서 벼의 전 생육기간 동안 발생한다. 지난해 벼 깨씨무늬병은 총 1만7,287헥타르에서 발생했으며, 2020년(6,798헥타르) 대비 254%, 평년(1만1,447헥타르) 대비 151% 늘었다. 병 발생 초기에 생긴 암갈색 타원형 무늬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주로 잎에 발생하지만, 벼알에 발생하면 표면에 갈색 얼룩이 형성돼 쌀 품질이 떨어진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비로 양분을 보충해 벼 생육을 좋게 하고 감염된 모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이삭 패기 전·후에 트리사이클라졸, 카프로파미드 계열의 약제를 뿌려준다.

벼 도열병은 질소비료를 기준보다 많이 주거나 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

지 않으면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는 지역과 지대별 표준 시비량을 참고해 적절한 양을 주고 잡초도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발병 초기에 트리사이클라졸, 아족시스트로빈 계열의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벼 흰잎마름병은 생육 중기인 7월 초·중순부터 발생하여 잠미와 태풍, 침수로 인해 널리 퍼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과 중간기주인 잡초에 의해 전염되므로 물길을 정비하고, 재배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편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아족시스트로빈, 페니진, 가스카비아진 계열 등의 약제로 예방적으로 방제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병 발생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자세한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일교차가 심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벼 병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이른 시기에 방제해야 한다. 물길 정비 같은 재배지 관리에도 힘써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경제발전 공헌 중소·벤처기업인 성과 공유·격려

전북 중기인 대회 개최
이성당 등 총 37점 포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21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2년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80년의 발달을, 100년의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지원단체에게 동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및 장·차관급 표창 등 총 37점을 수여했다.

올해 정부포상에서 모범중소기업인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이성당의 김현주 대표이사는 77년 역사로 가장 오래된 빵집을 경영하며, 군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1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2년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은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고,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이사는 페인트, 방수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북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꾸준한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윤상 기자

또한 (주)을코랜드 조하나 부장은 모범근로자 분야에서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우상 팀장은 육성공로자 분야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원단체 분야에서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더본건설, '김제 하동 본아르떼 분양 ... 모델하우스 오픈

수납공간 극대화, 공간활용도 높여

27일 특별공급
28~29일 1~2순위
일반청약 진행



김제 하동 본아르떼 조감도

전북지역 토종건설업체인 더본건설이 지난 17일 김제 하동 일대에 아파트 '김제 하동 본아르떼'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제 하동 일대에 위치하는 김제 하동 본아르떼는 지하층~지상20층 총 17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구 34형)단일 면적으로 타입은 A,B,C,D 4개 타입 공급되며, 4BAY 확장 구조, 펜트리 맞춤형 선택 등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해 공간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번호인식 주차관리시스템, CCTV보안시스템, 대기전력차단차단 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입주인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지 내부에는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자녀들 공부방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인들의 편의를 돕는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6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거지 선택에 있어 필수 요소인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핵심 인프라 입지를 갖추고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개발 호재로 인한 상품가치가 높아 향후 환금성 역시 높다는 점이다.

인근에 위치하는 종합버스터미널, KTX김제역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전주, 익산 군산을 20분대로 움직일 수 있어 시타라이프를 누릴 수 있고, 김제IC와 서김제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준공 예정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김제 및 봉원IC를 통해 쾌속교통망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반경 1KM 이내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학교를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김제초, 김제중, 김제고, 김제중 김제중앙중, 금성여중, 김제여중 김제고, 덕양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학교 생활권이다. 생활 인프라 또한 뛰어나다. 홈플

러스를 비롯해 경찰서, 법원, 세무서 등과 농업 하나마트, 전통시장, 김제시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문화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김제시에 공급돼 대출규제와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에서 자유로우며, 청약지역은 김제시 및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예치금 2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계약금 1천만원(1차),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적용하여 계약자의 부담감도 낮췄다.

한편 '김제 하동 본아르떼'는 27일 특별공급에 이어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체육, 미래식품자원'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략포럼 개최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병희)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식품자원, 대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포럼'이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병희)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식품자원, 대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포럼'이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도내 2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유행 소식으로 인한 환경, 건강, 윤리 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른 미래식품자원인 대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류대체식품 산업의 현재와 전망(전주대 신정규 교수) △대체육 관련 최신 연구현황(한국식품연구원 전기홍 책임연구원) △압출성형 대체육 생산과 국내발전방향(공주대 류기형 교수) △새로운 미래가치, 대체식품으로의 전환(주)농심 식품연구소 유홍훈 식재개발실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산업혁신본부 이은미 본부장 주재로 한국식

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소재팀 송진과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식품자원인 대체육 산업 선점·육성 방안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조남준 국장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농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은 "전북은 논농 재배면적이 전국 1위로 식물성 대체육산업의 최고 강점 지역인 만큼 대체육산업화센터 구축 등 대체육산업에서 전북이 선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신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북이 대한민국의 대체육 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백병희 원장은 "식품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시키기 위한 푸드테크의 일환으로 대체육 산업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대체육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대체육 산업을 전라북도의 그린 바이오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 내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고품질 우량 퇴비 생산·불량퇴비 유통 근절

전북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1일 농업진흥본부 회의실에서 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북협의회 소속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사업결과와 2022년 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2년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는 전북농협이 고품질 우량 퇴비를 생산하고 불량퇴비 유통을 근절해 농업인 영농편의 증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 퇴비는 지역 내 축산과 경종농업이 함께 공존, 공영하는 상생농업의 핵심"이라며 "농협에서 직접 생산한 퇴비에 걸 맞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농

가에 공급해 달라"고 강조했다.

곽동열 협의회장(무주농협 조합장)은 "고품질 퇴비 생산 및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JOB 콘서트

이동상담실 운영

전북일자리센터는 23일 군산 GSCO 컨벤션에서 열리는 2022 새만금 JOB 콘서트 채용행사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커피트럭)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만금 JOB콘서트는 지역 구직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와 NCS특강, 취업컨설팅을 운영하는 행사이다.

전북일자리센터도 이날 행사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커피트럭)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는 음료를 제공하며, 구직상담과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참여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